



6일부터 8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고창읍성 일원에서 '2019년 고창 문화제 야행(夜行)'이 진행된다.

초가을 밤에 떠나는 역사문화여행

고창문화제야행, 6일부터 고창읍성 일원서 개최

역사와 전통의 도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초가을 밤. 구불구불 이어진 성곽에 불이 들어오면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2일 고창군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고창읍성 일원에서 '2019년 고창 문화제 야행(夜行)'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야행은 읍성 야간 관람을 비롯해 야밤 백중싸움, 동민동락 다듬이질 노래 공연을 비롯해 마을·판토미임 등 각종 버스킹 공연, 다양한 먹거리·공예 체험 등이 열린다. 특히 개막공연인 '기원의 거울'은 지난해에 이어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 회원들과 고창군민 400여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오케레타 공연으로 주민화합의 장이자 역사문화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기도 드렸던 정성을 상징하는 창작뮤지컬 '정화수 치성'과 1803년 정월대보름에서부터 시작된 지역공동체 전통문화 축제인 '민속 대들놀이' 등의 대표프로그램을 통해 고창 문화제 야행만의 맛을 한층 더 살릴 예정이다. 고창군은 94년의 지정문화재가 밀집하는 보고(寶庫)이자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세계적으로 그 보존과 가치를 인정받은 아름다운 곳이다. 또 고창읍성과 고창오거리당산제 보존회 등

다양한 유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산실이다. 고창 문화제 야행은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 프로그램의 기획, 연출, 출연, 홍보를 도맡고 있다. 일부는 한 달 전부터 읍성 광장에 모여 모기떼와 싸워가며 공연을 연습해왔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 문화제 야행은 주민들 스스로 고창만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그 의미가 크다"며 "많은 분들이 고창 문화제 야행을 통해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아름다운 밤 문화를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제 야행'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문화재가 집적·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관광, 체험, 공연, 전시 등 문화제 야간 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올해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에서 문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반딧불축제서 문화교류 화합행사 개최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이 함께 하는 제19회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가 2일 반딧불축제가 한창인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됐다.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는 3시·군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역 간의 갈등과 차별을 허물고 화합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우애의 장으로, 무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맹

감상 무주문화원장과 배광식 영동문화원장, 최원봉 김천문화원 수석회장을 비롯한 3시·군 문화원 회원들과 주민 등 3백여 명이 함께 했다. 맹감상 무주문화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1년 무주에서 시작했던 행사가 영동과 김천을 거쳐 다시 무주에서 개최되며 벌써 열아홉 번째를 맞게 됐다"라며 "그간 길고 닳은 기찻길에 묻어날 흥과 맛이 화합을 다지고 반딧불축제의 재미도 키워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영동에서 준비한 우쿨렐레 공연과 김천의 무용 및 합창, 무주의 동래교방무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겼다. /무주=전문선 기자

또 반디랜드와 태권도원, 적상산과 와인동굴을 둘러 보는 시간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이 귀한 자리가 제2회 무주 반딧불축제장에 마련돼 기쁘다"라며 "오늘 행사가 3시·군의 화합을 꽃 피우고 각기 다른 문화를 교류하는 기회, 그리고 서로에게 베풀 목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삼도봉을 축으로 한 30년 인연이 후손 대대로 더욱 돈독해지고 문화원들이 주도하는 문화교류 또한 해를 지나며 그 깊이와 폭을 더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와 영동, 김천시는 지난 1989년 10월 삼도봉 대화합 협약을 맺은 이래로 매년 10월 10일 삼도봉 만남의 날을 통해서도 우의를 다지며 다양한 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고발레단, 내일 소리전당서 어린왕자 이야기 발레로 풀어

전북대학교 손운숙 교수(예술대 무용학과)가 이끄는 이미고발레단(Imago Ballet)이 초가를 밤을 어린왕자의 비밀이야기를 담은 발레 공연으로 물들인다.

내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발레단의 24번째 무대를 올리는 것.

'Orbit the Star'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이번 작품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주제를 바탕으로 어릴 적 한번쯤 들어보고 꿈꿔왔을 어린왕자의 비밀이야기를 신비롭고 순수한 발레 몸짓들로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기존 클래식 발레 공연이 아닌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 이야기를 발레극 형식으로 구성해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는 예술감독을 맡은 손운숙 교수를 주축으로 전북대 무용학과 강준하 강의전담교사가 연출을 맡았다.

손운숙 교수는 "협실의 사막 속에 살고 있는 지친 우리에게 어린왕자의 꿈과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전해지길 바란다"며 "어린왕자의 순수한 이야기를 통해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고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현 사회의 인간관계가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바람과



잃어버렸던 동심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무대를 위해 무더운 여름에도 혼신의 힘과 노력으로 위해 무더운 여름에도 혼신의 힘과 노력으로 고된 훈련을 극복한 제작진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북 지역 발레 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기자

전북대박물관, 오늘 진모영 감독과의 대화·영화 상영

전북대학교박물관(조대연 관장)은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을 초청해 지역민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박물관 시네마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오늘 오후 2시 전북대박물관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작된 '박물관 시네마 산책'은 목요시네마 뮤즈, 우리 지역의 영화촬영지 탐방,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감독과의 대화 등 지역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사람들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독립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2004년 480만 관객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영화를 관람한 후 진모영 감독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 제작 에피소드 등 관객과 함께 궁금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이어간다.

조대연 전북대박물관장은 "노부부의 잔잔한 삶 속에 녹아있는 사랑과 깊은 울림을 관객들에게 전해주는 이 영화와 더불어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현대인의 삶 속에서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며 시네마 산책과 같은 문화 예술의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